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ress Coverage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FTC**

Wednesday, November 29th, 2017

Table of Contents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FTC

I. AMCHAM Press Release (2)

1. English Press Release (November 29th, 2017)
AMCHAM Hosts a Luncheon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2. Korean Press Release (November 29th, 2017)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II. Newspaper (1)

1. Hankyung / 한국경제 (November 29th, 2017)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III. Internet News (15)

1.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전속고발권 관련 '유통 3 법' 개정 정기국회 처리 기대"
2.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만들겠다"
3. Asia Economy / 아시아경제(November 29th, 2017)
김상조 "유통 3 법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서 입법성과 기대"
4. Maeil Business Newspaper / 매일경제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정기국회 처리 기대"
5. Financial News / 파이낸셜뉴스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유통 3 법 전속고발권 폐지,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 기대"
6. Shina Ilbo / 신아일보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처리 기대"
7. Edaily / 이데일리 (November 29th, 2017)
암참,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8. Global Economy Times / 글로벌경제신문 (November 29th, 2017)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김상조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9.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美기업인 만난 김상조 "예측가능성 높여 준법비용 낮출 것"
10. Mediapen / 미디어펜 (November 29th, 2017)
재계,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발언에 우려
11. Mediapen / 미디어펜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필요...투명한 거래질서 만들 것"
12. Chosun Biz / 조선비즈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위원장 "해외기업 위해 기업정책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
13. SME Daily / 중소기업신문 (November 29th, 2017)
김상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14. Korea JoongAng Daily (November 29th, 2017)
FTC to make regulations 'more predictable'
15. Korea Herald (November 29th, 2017)
FTC head highlights market stability, drive for transparency to assure foreign businesses

IV. Photo News (12)

1.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2.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3.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암참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4.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암참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5.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암참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6.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7.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암참과 만난 공정거래위원장
8.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간담회 참석하는 김상조 위원장-제임스 김 회장
9.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10.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참석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김상조 위원장
11. MoneyToday / 머니투데이 (November 29th, 2017)
이야기 나누는 김상조 위원장-제프리 존스 이사장
12. Yonhap News / 연합뉴스 (November 29th, 2017)
FTC chairman Kim with AMCHAM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Press Release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FTC

Wednesday, November 29th, 2017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p style="font-size: small;">Since 1953</p> <p>AMCHAM</p> <p style="font-size: x-small;">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p>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large;">AMCHAM PRESS RELEASE</p>	<p style="text-align: center;">Your Partner in Business since 1953</p> <p style="text-align: center;">http://www.amchamkorea.org/</p>
<p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large;">For Immediate Release</p>	
<p style="text-align: center;">Contact: Head of Communications/PR NaHyun Kim (+82-10-3699-1748)</p>	

AMCHAM hosts a Luncheon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November 29, 2017 –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hosted the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GMM) with His Excellency **Kim Sang-jo**, Chairma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at the Lotte Hotel Seoul on November 29, 2017. In attendance were around 100 representatives from AMCHAM member companies and government officials.

The event began with opening remarks by **James Kim**, Chairman & CEO of AMCHAM, who introduced Chairman Kim and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with the KFTC. “It is an honor that AMCHAM has this special and unique opportunity to listen to and share the various insights from the American business community,” he remarked. “We hope to collaborate with the KFTC and establish a ‘win-win’ understanding.”

Chairman Kim delivered a speech about Korea’s recent economic situations and the role of KFTC. “The new government has decid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economic paradigm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he stated. “The role of the KFTC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creating a market environment that allows fair competition.”

In the fireside chat that followed by his speech, Chairman Kim and **Jeffrey Jones**, Chairman of AMCHAM Board of Governors, discussed about various issues such as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consumer protection,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KORUS FTA. Wrapping up the fireside chat, Chairman Kim once again emphasized AMCHAM’s important role in making efforts for the Korea-U.S. economic cooperation, promoting investment and various exchange activities

***Group Photo Caption:**

(Front row, from left) **Jason Park**, President & Representative Director of Maersk Korea Limited; **Te-Won Lee**, VP & President of Qualcomm Korea of QUALCOMM Korea Ltd.; **Jae Jung**, CEO of Ford Korea; **James Kim**, Chairman & CEO of AMCHAM Korea;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Jeffrey Jones**, Chairman of Board of Governors of AMCHAM Korea; **Steve Han**, CEO Korea of Morgan Stanley Korea; **Kee-bong Kwon**, Chief Executive Officer (CEO)/Representative Director of Brookfield BSREP II Real Estate YH; **Lincoln Park**, Associate General Counsel of Procter & Gamble Korea S&D Co.; **Young Joo Song**, Head of Government Affairs & Policy, Korea of Johnson

& Johnson Medical Korea Ltd.

(Back row, from left) **Pablo Lee**, CEO of Harley-Davidson of Korea; **Ikseo Cho**, President & CEO of Otis Elevator Korea; **David Ruch**, Country Manager-Korea of United Airlines; **Hyoung Lae Kim**, Regional Managing Director of Oracle Korea, Ltd.; **Jae Won Song**, PC Category Manager of HP Korea Inc.; **Joseph Song**, CEO & Chairman of Asian Tigers Transpack Co.; **Chris Ahn**, Director of Apple Korea Ltd.; **David Gossack**, Minister-Counselor for Commercial Affairs of the U.S. Embassy in Seoul (Commercial)

###

AMCHAM Korea was founded in 1953, with a broad mandate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investment and trad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MCHAM is the largest foreign chamber in Korea with around 700 member companies with diverse interests and substantial participation in the Korean economy.

* **Note:** “AMCHAM” should be used instead of “AmCham”

즉시 배포 가능합니다.

연락처: Head of Communications/PR 김나현 팀장(+82-10-3699-1748)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2017년 11월 29일 –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11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대표 및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본 간담회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축하 및 김상조 위원장 소개 연설로 시작되었다. 김 회장은 암참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간 협업과 ‘원원’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귀중한 자리를 통해 암참과 회원사들은 김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국내 외투 기업들의 현안을 논의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최근 국내 경제상황 및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연설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라고 전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공정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설 후 이어진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과의 좌담에서 김 위원장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 소비자 보호, 제 4차 산업혁명, 한미 FTA 등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견해를 공유했다. 또한, 한미간 경제협력 및 투자유치, 무역증진, 그리고 다양한 교류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암참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단체사진 캡션:**

(앞줄, 왼쪽부터) **박재서** 한국머스크 대표; **이태원** 쉐콤 코리아 사장; **정재희** 포드 코리아

사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 **한승수** 모간스탠리인터내셔널 증권회사 서울지점 (모간스탠리증권회사 서울지점) 대표; **권기봉** 에스아이에프시 프로퍼티 코리아 대표이사; **박린컨** 한국피앤지 전무; **송영주** 존슨앤드존슨메디칼 대외협력 및 정책담당 부사장

(뒷줄, 왼쪽부터) **이계웅** 할리데이비슨 코리아 대표; **조익서**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 사장; **데이비드 렉** 유나이티드항공 한국지사장; **김형래** 한국오라클 사장; **송재원** 한국휴렛팩커드 유한회사 상무; **송정섭** 아시안타이거즈트랜스팩 회장; **안철현** 애플 코리아 부사장; **데이비드 고삭** 주한미국대사관 상무공사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1953년 한미 양국의 투자와 무역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로, 한국 경제 각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700여 개의 기업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Newspaper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FTC

Wednesday, November 29th, 2017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Hankyung	Date	October 26 th , 2017
Title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Link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928201		
Source	Print (Pg. A6) and Internet News		

“한국은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비용이 많아 미국 본사에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준법감시 비용으로 로펌 등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추가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계 기업에 이런 준법감시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국 대신 중국, 인도, 일본 투자를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참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제도는 해외 기업에 생소할 뿐 아니라 일상적 경영활동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용 환경과 관련한 비용 문제가 이해당사자 간 계약으로 해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비용이 정부 검찰 등의 영역으로 일부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비용을 유발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와 법률 준수에 드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존스 이사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페이크(가짜) 뉴스나 블랙컨슈머(민원이나 소송을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기업 피해가 증가

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촉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조사할 때 공정위만 조사·고발권을 갖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복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당장 폐지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규율하고 있는 6개 법 가운데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Internet News

AMCHAM GMM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FTC

Wednesday, November 29th, 2017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전속고발권 관련 '유통 3법' 개정 정기국회 처리 기대"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9/0200000000AKR20171129072751003.HTML?input=1195m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 일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이달 12 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 개 법 가운데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 법'을 먼저 손보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담긴 관련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 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처음부터 기업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는 "전속고발권만 풀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며, 기업 문제를 검찰에 맡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암참 회원들의 질문을 취합해 대표로 질문한 존스 이사장은 '가짜뉴스'나 '블랙컨슈머' 등에 의해 고발권이 남발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제도 악용으로 기업 평판에 타격을 입고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제도 악용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기업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에 더 큰 투자를 원하는 미국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는 질의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받아넘겼다.

그는 "고용을 할 때 인건비 말고도 여러 관련 비용이 발생할 테고, 환경 관련 규제 비용과 회계보고서 작성 관련 비용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비용이 한국에서는 대부분 준법 관련 비용으로 넘어올 텐데, 한국 정부는 준법 관련 비용을 낮춰주기보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기업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소회를 묻자 그는 "20 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기업감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 자체는 생소하지 않다"며 "교수와 시민단체 책임자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약 60 여명의 암참 회원에게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만들겠다"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29/0200000000AKR20171129072700003.HTML?input=1195m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오찬 행사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꾸준한 주가 상승, 충분한 외환보유고, 국제금융기구의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일자리·소득 증가, 혁신, 공정한 경제 성장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해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한 내부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세계의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며 "한국시장이 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호 번영을 누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Asia Econom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서 입법성과 기대"		
Link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2916591330713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유통 3 법(가맹·유통·대리점)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기대한다고 29 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 초청 오찬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12 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보고서를 통해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 개 법 중 유통 3 법에서 먼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 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소제도는 피해자가 공정위에 고발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불공정행위 중단을 청구하는 것이다.

블랙 컨슈머에 의해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제도 악용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공정위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기업에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찬에 참석한 60 여명의 암참 회원에게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에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aeil Business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정기국회 처리 기대"		
Link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91722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 일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연사로 참석해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어제 국회에서도 입법 심의가 있었다"며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Financial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유통3법 전속고발권 폐지,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 기대"		
Link	http://www.fnnews.com/news/201711291553273062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 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와 관련 "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 등 60 여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밝힌 '사소 제도'는 피해자가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앞서 이달초 공정위는 가맹·유통·대리점법 등 유통분야 3 법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누구나 고발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유통 3 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 만으로 우리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한 것"이라며 전속고발권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대기업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탄압이라는 점은 오해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Shina Ilbo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 처리 기대”		
Link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957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위가 독점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입법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연사로 참석해 “일부 법률에서 법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소(私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사소 제도로 표현한 것은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 행위 중단을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뜻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2일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공정위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속고발권을 규율한 6개 법 가운데 고도의 경쟁제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 3법’을 먼저 손보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표시광고법 등에 담긴 관련 내용은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공정위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만으로는 한국 경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이에 공정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는 당장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유통 3법을 먼저 풀면서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이 처음부터 기업을 수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만 풀어서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다”며 “기업 문제를 검찰에 맡기는 건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Edail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김상조 공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Link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988486616130640&mediaCodeNo=257		
Source	Internet News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약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대표 및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공정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 위원장은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을 만나 국내 비즈니스 환경, 소비자 보호, 제 4차 산업혁명, 한미 FTA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암참은 전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Global Economy Time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김상조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Link	http://cnews.getnews.co.kr/view.php?ud=201711291710378381f97ee432d6_16#06ne		
Source	Internet News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하여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간담회에는 본 간담회는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의 암참 회원사 대표 및 한미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간 협업과 '원원'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암참과 회원사들은 김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국내 외투 기업들의 현안을 논의드릴 수 있게 되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상황 및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의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공정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설 후 이어진 제프리 존스 암참 이사장과의 좌담에서 김 위원장은 국내 비즈니스 환경, 소비자 보호, 제 4차 산업혁명, 한미 FTA 등의 다양한 이슈에 관한 견해를 공유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美기업인 만난 김상조 "예측가능성 높여 준법비용 낮출 것"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444916351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기업정책과 관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준법 비용을 지출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기업활동을 할 때 고용, 환경 등과 관련해 계약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한국에선 법률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해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한 내부 거래 근절과 함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를 이어가는데 대한 외국 기업들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일시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긴 힘들다"며 "경제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분산한다는 취지

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분석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분야부터 서서히 풀어 한국사회의 적응과정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개혁작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다만 그 개혁 수단 악용할 경우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며 "한국시장이 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호 번영을 누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ediapen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재계, 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발언에 우려		
Link	http://www.mediapen.com/news/view/316845		
Source	Internet News		

재계는 2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위는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발언과 관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오찬 행사에서 국내에 있는 미국 기업인들을 만나 '재벌 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가 한국 재벌 개혁에 대해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세계의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며 "한국시장이 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호 번영을 누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를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목적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권한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한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

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 수단을 분산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인적역량 만으로는 한국경제 모든 불공정 문제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TF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해 온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에 대해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공정위의 이같은 계획은 김 위원장이 구상하는 재벌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4대그룹 경영진을 만나 "기업인들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달 2일 5대그룹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개혁의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며 "12월까지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구조적인 처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자발적 변화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성격의 발언을 한 것이다.

재계는 묻지마소송 및 고발권 남용으로 이어질까 불안한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법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인 고발이 곧 개인에 대한 고발이 되는 만큼 공정위가 재벌 개혁에 본격적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ediapen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 필요...투명한 거래질서 만들 것"		
Link	http://www.mediapen.com/news/view/316848		
Source	Internet News		

공정거래위원장이 '투명한 거래 질서'를 강조하면서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간담회 연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일단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꾸준한 주가 상승, 충분한 외환보유고, 국제금융기구의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새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갑을(甲乙)'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세계의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겠다"면서 "한국시장이 세계 기업과 한국 기업이 상호 번영을 누리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Chosun Biz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위원장 "해외기업 위해 기업정책 예측 가능성 높이겠다"		
Link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9/2017112901975.html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외 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를 위해 "법 준수 비용을 금전적으로 낮추기 위해 기업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최한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법 준수(compliance)와 관련해 한국의 규율 시스템이 정비되지 못해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기업 활동을 할 때 고용, 환경 등과 관련해 계약당사자 간 계약에 명시돼야 할 비용이 한국에선 명시되지 않아 법무법인에 쓰는 돈이 많아진 것 같다"며 "한국 정부는 불확실성을 낮추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의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더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월가의 기관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미국에서만 한국에서도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말했다"며 "한국에 계신 해외 기업 관계자들도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미국 기업인들에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일자리·소득 증가, 혁신, 공정한 경제 성장 등 세 축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고질적인(chronic) '갑을(甲乙)' 관계 개선, 재벌개혁 등을 위

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허 남용으로 시장 경쟁을 해치는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바일, 제약, 바이오 등 신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재벌 계열사 간 불공정 내부 거래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도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 규제당국을 벤치마크해 전속고발권 폐지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갖고 있는 인적 역량이나 전문성만으로는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응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풀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권만 풀어서 검찰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검찰에 가기전에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조치를 먼저 취할 것이며 경제 분석 필요성이 크지 않은 부분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SME Dail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김상조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Link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66		
Source	Internet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 형식으로 열린 오찬 행사 연설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한국 경제가 북핵 위협 등 위기 요인에도 불구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꾸준한 주가 상승, 충분한 외환보유고, 국제금융기구의 성장률 상향 조정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공정위도 고질적인 '갑을(甲乙)' 관계 개선, 재벌 개혁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해 "기업 탄압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재벌 개혁은 주주와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 활동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Korea JoongAng Dail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FTC to make regulations ‘more predictable’		
Link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41430		
Source	Internet News		

The Korean antitrust agency chief, Kim Sang-jo,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will be making regulatory policies “more predictable,” not only to reduce compliance costs but also to boost the business environment particularly for foreign businesses.

During a forum organized by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on Wednesda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chairman said that foreign business expenditure for legal advice seems to result from ambiguous regulations.

“Because the [cost-related] regulations are not well organized, companies are burdened with legal counsel related to the [Korean] government, the KFTC and the prosecutors’ office,” Kim said. “This reality in Korea is certainly inefficient and I believe such costs should not be increased.”

He said he strongly believed that the business environment can only be normalized when the costs that are spent on compliance are transferred to actual costs that benefit both the company and the related parties such as expenses on labor and complying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rather than focused on legal counsel.

Kim’s comment came after Jeffery Jones, Amcham’s Board of Governors chairman, told Kim that American businesses, which are working hard to convince their headquarters to increase investment in Korea, are facing difficulty due to rising compliance costs.

The FTC chairman also said the government will apply strict penalties to those that try to take advantage of looser regulations that allow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the local government to pursue antitrust cases.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Korea Herald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FTC head highlights market stability, drive for transparency to assure foreign businesses		
Link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1129000895		
Source	Internet News		

The head of the nation's antitrust watchdog, Kim Sang-jo, assured foreign businesses here that he is confident the South Korean market will remain strong despite concerns over North Korea's latest missile launch Wednesday.

The chairma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lso said his organization is devoted to increasing transparency to raise the market's credibility for foreign businesses operating here.

"When looking at the stock market conditions and economic outlook, the Korean economy remains stable. ... I do believe the Korean economy will remain stable even (after) this morning's missile launch by North Korea," said the chairman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during a general membership meeting among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t Lotte Hotel in Seoul.

In an effort to assure the foreign investors community, Chairman Kim spoke of the economic importance of Korea and the US maintaining strong bilateral ties amid FTA revisions, as well as the FTC's push to create a higher standard for business transparency to assure equal opportunities for local and global companies operating in the countr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inseparable economic partners, which have been writing a history of mutual prosperity based on their strong alliance," said Kim.

"The United States is the most important economic partner to Korea, which has grown based on export-driven foreign economics," he continued, adding that prior to the enactment of the Korea-US FTA, the two nations had seen a 12 percent increase in trade despite a simultaneous decline in world trade.

Dubbed "chaebol sniper," as he is a longtime activist against Korea's conglomerate-centered economy, the FTC head has slapped sanctions and launched investigations into the nation's top conglomerates since his appointment in June.

The FTC previously announced that 1,966 firms were currently on its monitoring list, as it moves to fight corruption in the private sector; increase measures to alleviate market monopoly among Korea's family-run conglomerates; and tackle transparency issues, which

many financial experts pinpoint as a hindrance to foreign investors' confidence in the Korean market.

"The new government has decided to fundamentally change the economic paradigm to solve the structural problems," he said. "The role of the FTC is more important than ever in creating a market environment that allows fair competition."

"In order to promote new businesses based on entrepreneurship and creativity ... I do believe that establishing a fair market is a must. Everyone should be given equal opportunity for business activities and be rewarded for their hard work through free competition," Kim said, adding the FTC will take a firm stance to eradicate the abuse of power.

During the meeting, Jeffrey Jones, chairman of AmCham's board of governors, said that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faced by foreign business looking to invest in Korea is the high cost of compliance with regards to the costs of business practice investigations and audits.

When asked how investors can combat this issue, Chairman Kim responded by saying that although investment costs are inevitable, the FTC's stricter regulations on corporate disclosure to promote transparency would lead to a more predictabl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eventually reducing costs.



Since 1953
AMCHAM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Photo News

AMCHAM General Membership Meeting with H.E. Kim Sang-jo, Chairperson of the KFTC

Wednesday, November 29th, 2017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1291257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1291258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1291256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1291259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간담회서 발언하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Link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71129126000013&input=1196m		
Source	Photo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312511437		
Source	Photo News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제프리 존스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암참과 만난 공정거래위원장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342565143		
Source	Photo News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간담회 참석하는 김상조 위원장-제임스 김 회장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294018065		
Source	Photo News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간담회 참석하는 김상조 위원장-제임스 김 회장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323673994		
Source	Photo News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과 암참 제임스 김 회장, 제프리 존스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참석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김상조 위원장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330567743		
Source	Photo News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참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MoneyToday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이야기 나누는 김상조 위원장·제프리 존스 이사장		
Link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112912333832710		
Source	Photo News		



2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참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Internet News Clipping

Media	Yonhap News	Date	November 29 th , 2017
Title	FTC chairman Kim with AMCHAM		
Link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ForeignGallery/view.aspx?lang=EN&contents_id=PYH20171129135300341		
Source	Photo News		



Kim Sang-jo, chairma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TC), speaks at a breakfast meeting with members of the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MCHAM) at Lotte Hotel in downtown Seoul on Nov. 29, 2017.

